

# 새싹포켓지 7

## 7월 행사 소식

07.02~07.05 아동의 생명을 살릴 심폐소생술을 배우다!



박지훈 소방관이 시범을 보이고 있다.



임효진 학생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7월 2일에서 5일까지 우송관 506호에서 아동간호학을 수강하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중부소방서의 박지훈 소방관이 방문하여 첫째 날에는 실생활에 필요한 응급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비롯한 이론 수업을, 둘째 날에는 심폐소생술을 배웠다. 한 학생은 교수님과 같이 아무리 흥분을 눌러도 잘되지 않았으나 친구들의 응원으로 끈질기게 도전한 덕에 만점으로 성공시키기도 하였다. 모든 학생들이 한 여름날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수업에 임하는 모습이였다.

07.05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에게서 공존하는 삶의 태도를 배우다!



7월 5일, 우송관 506호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열었다. 특강 강사는 의정부 삼성어린이집에서 종사하시는 김미영 박사님으로, 현재 의정부 삼성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IEP교육과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어떻게 공존하고 교육을 받는 것인지 사례를 들며 수업하셨다. 특강을 마친 후, 한 학생은 아직도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 받는 수업이 있다는 생각을 못했으며, 그 수업이 일반아동에게도 영향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리고 장애아동을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며 서로 도우려고 하는 모습이 자신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 감동적인 장면이었다고 했다.

## 07.12, 07.18 우수 유치원 탐방에 나서다!



사이언스 신성어린이집에 들어가기에 앞서 단체사진 촬영



공주영상대학 부설유치원에서 단체사진 촬영은 필수!

7월 달, 유아교육기관 관찰 및 실습 과목을 배우고 있는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2학년 학생들은 유치원 탐방에 나섰다.

7월 12일, 신성 사이언스 어린이집과 천안 도솔 유치원을 다녀왔다. 신성 사이언스 어린이집은 연구단지에 위치해 있어 연구원들의 자녀들을 돌봐주는 직장어린이집이고 천안 도솔유치원은 단설유치원으로 장애아와 일반아를 통합하는 장애통합유치원으로 유명한 곳이다. 2학년 학생들은 실제로 유아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환경 등을 보고 배웠다고 했다.

7월 18일에는 공주영상대학부설유치원과 혜원유치원을 방문하였다. 공주영상대 부설유치원은 폭넓게 구성되어있는 야외시설과 실내시설에 많은 학생들이 놀라워했고, 현재 PBL수업을 통해 우송유치원의 실외환경을 재구성 중인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두 번째로 방문한 혜원유치원은 대전에만 두 곳이 있어 교사들이 순환근무를 하는 큰 규모의 사립유치원이다. 교실에서 어떤 주제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환경구성이 잘 돼있는 곳이다. 한 학생은 이번 사립유치원의 견학을 통해 공립유치원과의 약간의 다른 점도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2학년 학생들은 직장어린이집, 공립유치원, 대학부설유치원, 사립유치원 네 곳을 가보면서 각 유치원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 07.25 고등학생들, 대학교 탐방에 나서다!



7월 25일 35명의 고등학생들이 보건 복지 대학 학과 탐방을 지원했다. 그 중 사회복지 아동 학부를 지원한 12명의 학생들을 제외한 23명의 학생들이 유아교육과 학과 탐방을 지원했다. 학교 프로그램을 마치고 35명의 학생들이 우송과 506호에서 이성희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다. 강의가 끝나고 실습실인 509호와 학과 사무실을 둘러 보고 우송 유치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유치원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둘러보고 준비된 간식을 먹은 뒤 안내에 따라 3층 재미있는 방으로 향했다. 유아교육 과에서 준비한 3가지의 게임들을 모두가 열정적으로 한 뒤, 23명의 유아교육과 지원 학생들은 교수님들과의 짧은 면담을 가졌다. 탐방을 마친 몇몇 고등학생과 학과 탐방 도우미를 했던 학생들은 함께 사진을 찍고, 캠퍼스에서 만나자는 덕담을 주고 받았다.

## 교수 학습 동아리의 ESD 교육을 알리기 위한 아름다운 실천



기부한 물품들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한 교수 학습 동아리 학생들

우송대 유아교육과 동아리 중 하나인 교수학습연구 동아리는 유아교사의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교구를 만들어 유치원에 기부하기도 하며, 교수학습에 대한 토론을 하는 동아리이다.

이번에 교수학습연구동아리에서 야심차게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속가능발전교육(ESD교육)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즉 ESD교육이란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개인의 역량, 예를 들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의 구조와 행동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난 3월과 4월에 거쳐 ESD교육이라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해 파악하고 토론을 통해 환경이란 주제를 선정하였고 주제 선정 후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5월 달에는 자양동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자취생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처리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이번 6월 달에는 설문 조사를 통계하여 동사무소에 건의하였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 라는 동사무소의 답변을 받은 후 앞으로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 대학생과 주민들의 실천행동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쓸모가 있지만 쓰지 않는 물품들을 받아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였다.

한 학생은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직접 조사하고 사진을 찍으며 많은 정보와 값진 경험을 얻었다. 이에 비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우리가 계획한 결과가 실행되어지지 못한 점이 끝내 아쉬웠지만 아름다운 가게에 옷, 액세서리, 책 등 쓰지 않는 물건들을 모아 기부하는 활동이 잘 마무리가 되어 뿌듯하고 보람찼다" 고 했다.

이처럼 ESD교육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교육이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 동아리에서 행한 작은 실천들을 보고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도 뒤를 이어가길 바란다.

\* **ESD**교육이란? (Education for sustainable Dvelopment의 약자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이라는 뜻이다.)

### 여름 낮



꽃들이 덥다고  
“아이, 더워!”  
졸라대니까

나비가  
펄럭펄럭  
부채질해요.

새들이 덥다고  
“아이, 더워!”  
졸라대니까

나뭇잎이 덥다고  
살랑살랑  
부채질해요.



서정숙 글



## Smart하게 쓰는 사람이 진정한 스마트인

최근 스마트 폰 중독에 대한 많은 사례가 있다. 심지어 유아들마저도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울고 있는 유아에게 스마트폰으로 ‘뽀로로’ 나 ‘타요’ 영상을 보여주면 울음을 그치는 광고가 있을 정도이다. 또한 요즘에는 유아들이 아빠를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스마트 폰을 반가워한다는 말이 있기도 하다.

스마트폰 중독은 치매와 건망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집중력 저하, 사람들과의 대화 단절 등의 문제점이 있다. 지금부터 당신이 스마트 폰 중독인지 자가진단을 통해 알아보자.



### 스마트폰 자가진단

1. 화장실에 갈 때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2. 내가 스마트폰 중독자라고 느낀다.
3.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크나큰 상실감을 느낀다.
4. 충전한 배터리가 하루를 못 간다.
5. 스마트폰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생활비를 줄였다.
6. 스마트폰으로 인해 성적(업무성과)이 떨어졌다.
7. 모든 스케줄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다.
8. 기본 어플 외에 설치한 어플이 30개가 넘는다.
9.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보려 노력을 했으나 번번히 실패했다.

**0~3개** : 당신은 정상입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한 스마트 인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4~7개** : 중독 초기증세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주의하여 완전 중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8~10개** : 당신은 완전 중독입니다. 스마트 폰 말고 다른 취미를 가져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어떨까요? 유용한 스마트 폰을 제작자의 의도에 맞게 적당히 사용하고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하는 사람이 진정한 스마트 인이 아닐까요? 유아교육과 여러분 모두 스마트 폰을 스마트하게 써서 모두 스마트 인으로

거듭납시다!

\* 스마트폰도 적절히 조절해서 쓰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대학생들에게 몇 가지 유용한 어플을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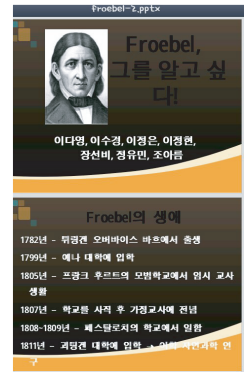
### 1. Time Table 어플 ? 시간표 어플



매 학기마다 변하는 시간표와 많은 건물을 사용하는 대학생들에게 필수 어플이다. 과목을 색깔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위에 과목의 이름과 시간을 원한다면 수업하는 건물과 교실을 필기할 수 있다. 또한 한번의 터치로 각 과목에 필기를 할 수 있어서 시험 일정이나 과제를 메모할 수 있다.

### 2. Doc Converter ? 문서뷰어 어플

주로 문서작업이 과제인 대학생들이 과제를 수정하고 확인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다. 따로 프린트하면 시간과 돈이 소비되지만 그저 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시험기간처럼 밥 먹는 시간, 이동시간도 아까운 그 때, 스마트폰을 꺼내 활용하는 그대는 진정한 이 시대의 스마트인이다.



### 3. 스마트 월렛

‘전공교과만 해도 무거운데 파우치에, 필기도구에, 가방이 짝 찼는데 지갑에, 포인트 카드는 왜이리 많은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이다. 다양한 포인트 카드들을 등록만 하면 사용할 수 있고, 카드별로 쿠폰을 등록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어플!

만드는 사람들 .

지도교수 : 성원경 교수님

3학년 : 김진희

2학년 : 김민아 이다영 이정현

1학년 : 박지원 여은솔